



“광주여성영화제 오세요”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광주여성영화제(11월 19일~21일)’ 거리홍보가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에서 열렸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플래카드를 흔들며 포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ju.co.kr

잊혀진 독립운동 사적지

오늘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광복회 광주·전남 176곳 조사

일본 신사·경찰서·형무소·시위 장소 등 안내판 조차 없어

광주·전남이 ‘의향(義鄉)’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적지가 안내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이 일어났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사적지에 대한 정보코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앞두고 2일 발표한 ‘광주·전남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실태와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형보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대상 사적지는 광주·전남지역 23개 지역 176곳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 강압통치의 상징으로서 역사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곳임에도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세워진 현충탑(우리 위한 영의 탑) 자리에는 애초 일제가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위해 세운 ‘광주신사’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 안내판에는 한국 전쟁 때 전몰장병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총장서립 자리도 1908년 일제 강압 통치기관인 광주경찰서가 설립된 장소로, 위치 확인 정도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현재는 어떤 흔적도 없다. 또 독립지사들이 투옥·살해됐던 동명동 ‘광주형무소’ 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위치했던 ‘일본현병대 광주본부’ 등에 대한 안내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시위장소 등에도 안내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1929년 11월 1, 3일 한국·일본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나 광주학생운동 시발이 된 ‘광주역’에는 광주학생운동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또 1929년 11월 3일 한국·일본 학생들이 대치하던 대의동 토포(흙다리) 자리, 3·1운동 당시 세시위지인 동구 불로동 ‘장터’, 일제시대 ‘광주농업학교’ 수피아여학교 “승일학교” 등 학생들의 시위가 발발했던 곳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채희증기자 chae@kwanju.co.kr

광주 가로수 1위는 은행나무

값싸고 관리 편해 전체 34%… 2위는 느티나무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읍식점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 주변. 시민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찌푸린 채 코를 움켜잡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에서 풍겨져 나오는 불쾌한 냄새 때문이다.

매년 가을마다 은행나무가 심어진 광주시내 곳곳에서 약취가 발생하고, 바다에 더럽히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밟으면서 흘러나온 노란색 열매즙으로 바닥이 더럽혀지고, 은행 특유의 끼운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값이 싸고,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가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내 전체 가로수 12만3000여 그루 중 은행나무가 4만1000여 그루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느티나무(2만6000여 그루, 15%, 이팝나무(1만2000여 그루, 10%), 메타세콰이어(1만여 그루, 8%), 왕벚나무(7900여 그루, 6%), 종국 단풍(4700여 그루, 4%) 순이었다.

이날 현재 은행나무 묘목은 한 그루당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높이가 1m 이하인 작은 은행나무는 1만원 미만으로 팔리기도 한다. 이처럼 저렴한 은행나무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재생력이 강하고, 환경오염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도심 가로수로 제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호기자 kimho@kwanju.co.kr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채용

MOU 연내 체결

미래의 기술 명장은 양성하고자 올해 처음 문을 연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삼성전자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된다.

삼성전자(사장 최지성)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채용 예정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우선 채용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11~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선발 규모는 1학년 전체 정원(총 3600명)의 3~5%인 100~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발 결과

를 보고 매년 채용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채용 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학교에서 추천하면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채용 예정자로 선발되면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삼성전자로부터 500만 원 가량의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방학 중에는 삼성전자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또 학기 중에는 삼성전자와의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이수하게 되며 2013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졸신 1기생으로 삼성전자에 최종 채용된다. 물론 병역의무 대상자는 군 복무 이후에도 복직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물 06시 55분 해진 17시 37분

달밤 03시 18분 달점 15시 22분

얼음 알고 서리

내륙과 산간지방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었다.

광주	맑음	3/15°C
목포	맑음	4/14°C
여수	맑음	6/15°C
완도	맑음	4/15°C
구례	맑음	-2/16°C
해남	맑음	0/16°C
장흥	맑음	0/16°C
고흥	맑음	1/17°C
순천	맑음	3/16°C
영광	맑음	1/14°C
전주	맑음	3/16°C
전남	맑음	0/14°C
원주	맑음	-3/14°C
흑산도	맑음	9/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서해 남부 일비바다	북서~북	1.0~2.0m	식중독지수 뇌출증지수
만비바다	북서~북	1.5~2.5m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일비바다	북서~북	1.0~2.0m	보통
만비바다	북서~북	1.5~2.5m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낮음
서해 남부 일비바다	북서~북	0.5~1.0m	밀물
만비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남해 서부 일비바다	북서~북	0.5~1.5m	11:35 04:37
만비바다	북서~북	1.0~2.0m	23:53 17:03
			여수 06:39 00:14
			18:52 12:4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씨	5/17	7/18	8/19	8/19	8/15	5/14

하나SK 카드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 카드 하나만

최대 외식 50%할인 / 영화 연간 12회 무료 / 주유, 이트 예약 20% 할인 / 학원 배달 10% 할인

학의 2011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모아본 결과 총 모집인원은 학사 8만 8780명, 전문학사 4598명 등 9만3378명으로 취합됐다고 2일 밝혔다.

전형은 특별과 일반으로 나뉘며 논술고사 또는 적성검사, 기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가맹점 모집

명품 두부 **간장 아시는 두부** **웰빙**

★ 점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두부 장점

사포닌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270배!
이소플라본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3배!

최우수란? 콩을 통째로 미세분말하여 만든 두부로 식이섬유질(콩비지)과 미네랄 등 콩의 영양분 100%를 담은 최고 명품 두부를 말합니다.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폴리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당뇨병 예방 효과!
식이섬유 콩인병 예방 및 변비 개선 효과!
레시린 대두에 양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암, 심장병, 고혈압 등에 예방 효과!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아에서 분리한 특수지방질, 이 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치매 예방 효과!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비교분석

구 분	전 두 부	일 반 두 부
원재료	생대두, 미세분말	생대두, 파쇄분
두부제조시간	40분(4번간단)	10시간(복잡)
용수 사용량	기준두부 1/5	다수의 수증 / 생강수 소주
비지 발생률	비지 발생 없음	두부의 120% 발생
폐수 발생률	폐수 발생 없음	대두의 10배 이상
생산성(대수 1kg)	20모/800g	30모/300g
영양분	대두의 전체 성분 보존	단백질 등 일부만 전류
맛과 날세	고소하고 담백함	담백함
보존성	기준 두부의 10배 이상	3~4일

초보자 창업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참여!

소지본 창업 기반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리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매뉴기능성(소상공인, 리스)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 100% 국내산 콩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쑥두부)

※ 최고 수준 디랑크 보유, 적은 형별 ~ 큰 형별 운영 가능

오픈 기준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상담 ☎ 062)383-0029, 010-6625-0866

※ 위치: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8층문 앞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작 가능합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봉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철단소재 -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친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img